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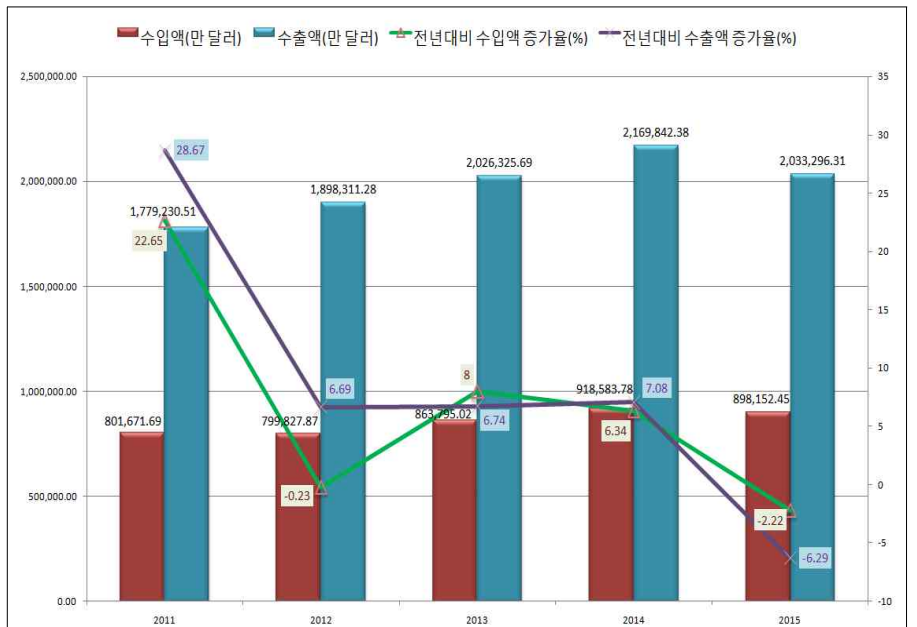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 중국 수산물 수출입 현황(2011~2015년)
- ▶ 이슈 포커스
 - : 한·중 수산업 3대 주요 이슈 및 동향
- ▶ 동향 & 뉴스

중국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자료를 「KMI 중국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KMI All Rights Reserved.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중국 수산물 수출입 현황(2011~2015년)



자료 : 2012~2016년 중국어업통계연감 종합정리 KMI 작성.

2015년 중국 수산물 수출입액 전년 대비 감소, 중장기 전망은 밝아

2015년 중국 수산물 수입액은 89억 8,152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액은 203억 3,296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2015년의 수출입액은 전년대비 감소했는데, 특히 수출액의 감소는 국제 소비시장 위축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 동남아 등 주요 수산수출국과의 경쟁력 약화 및 중국 국내 생산능력 과잉으로 인한 경쟁 등에 기인한다. 수입액의 감소는 가공용 원재료 및 어분의 수입량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은 2011년에 비해 수출액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유럽채무위기 및 미국 공적채무 규모의 확대에 의한 국제시장의 소비능력 하락, 수산물 원재료 및 생산 원가의 인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 이후 단기적 관점에서는 세계 경제 부진이 지속되면서 수산물 수출입 증가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특히 “13·5”계획 기간에 중국 수산물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콜드체인의 발전, 국내 신선 수산물 소비의 증가 예상 등으로 향후 중국 수산업 시장은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 중국 수산물 수출입 현황 (2011-2015년)
- ▶ 이슈 포커스
 - : 한·중 수산업 3대 주요 이슈 동향
- ▶ 동향 & 뉴스

지수 동향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01-08	09-14
종합지수	734.95	711.55
일본 항로	619.87	646.77
구주 항로	855.19	878.24
미서부 항로	761.60	610.85
미동부 항로	846.92	783.85
한국 항로	584.19	587.45

주 : '01-08' 2016년 1월 8일 지수.
자료 : 상하이 항운교역소.

CHINA COASTAL BULK
FREIGHT INDEX

	01-08	09-14
종합지수	856.91	866.78
석탄	844.95	848.09
곡물	606.92	773.03
금속광석	833.43	810.93
정유	1,354.12	1,306.81
원유	1,541.72	1,541.72

자료 : 상하이 항운교역소.

이슈 포커스 : 한·중 수산업 3대 주요 이슈 동향

지난 8월 26일 상하이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최로 한국 수산물기업의 대중국 수출 진흥을 모색하는 제4회 한·중 수산물 수출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중 수산물 교역 인프라 강화라는 주제로 한·중 양국 전문가들의 열띤 발표와 토론이 벌어졌다.

이틀 전에는 2016년 장강삼각주 수산발전포럼에서 중국 수산업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중 양국의 수산업 교역은 FTA체결로 인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고, 전자상거래 및 냉동·냉장물류의 사업 확대에 따라 상생의 기회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호 이슈 포커스는 최근 한·중 수산업 교역과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국 내 수산물 주요 이슈에 대해 8월 말에 있었던 두 가지 주요 포럼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소개하였다.

1 중국 수산업 콜드체인 물류와 한·중 비즈니스 모델

1. 현황 및 문제점

중국은 세계의 주요한 수산물 소비국이다. 이로 인해 많은 글로벌 수산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냉동·냉장창고 등 인프라 시설이 급속 증가하고 있다. 연해지역에서 창고 물류 시설을 많이 건설했고 창고 수는 연평균(2003~2013년) 4.4%가 증가했고, 이중 대형 창고의 연평균(2003~2013년) 증가율이 4.3%이다. 2015년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은 6,9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수산물 콜드체인 물류 총액은 3,397억 8천 8백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4%가 늘어났다.¹⁾

그러나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아직 중국 내 콜드체인 물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²⁾ 첫째,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콜드체인 기본 인프라 부족이다. 수산물을 생산지로부터 배송지까지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운송하는 것이 콜드체인 물류의 핵심이다. 그러나 중국은 우선 콜드체인 물류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리고 중국내 유통되는 수산물의 25%만 콜드체인망을 통해서 유통된다. 이로 인해 전체 수산물 유통 물량의 15%가 유통과정 중에서 폐기된다. 또한 냉동·냉장 창고와 운송차량이 부족하고 이러한 물류시설 설치 및 이용비용이 비싸 물류비가 높다. 특히 중국 전역 배송을 위한 도로인프라가 아직 잘 갖춰지지 못해 교통운송 효율이 낮아 이 또한 물류비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 자오광(赵光), "2016 장강삼각주 수산발전포럼 논문집", P.77~81.

2) 특히 황평셴(黄凤仙), "2016장강삼각주 수산발전포럼 논문집", P.73~76, 참조 정리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중국 수산물 수출입 현황(2011-2015년)
- ▶ 이슈 포커스
: 한·중 수산업 3대 주요 이슈 동향
- ▶ 동향 & 뉴스

둘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운영시스템의 부족이다. 아직 콜드체인에 대한 인식이 낮고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수산물 경영 관련 주체의 규모 및 전문성이 낮고 수산물 유통 경로가 복잡하다. 또한 수산물 기업들이 전문 물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 그리고 수산물 물류정보에 대한 피드백이 느리고, 정확성이 낮다.

셋째, 콜드체인 물류산업에 대한 규범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명확한 관리기구가 없어 콜드체인 물류를 통해 운송되는 수산물의 품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 한중 수산물 교역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모델³⁾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 수산물 냉동·냉장업의 발전은 국제화의 기회이다. 중국을 이용해 해외기업의 물량을 확보하고, 동북아시아 식품물류에 대응할 수 있다.

첫째, 한·중 간 수산물 교역과 인프라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수산물 콜드체인망 구축 및 운영이 시급한 중국과 콜드체인 운영 노하우 및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산업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양국의 주요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둘째, 공동 냉동·냉장창고 투자운영 전략을 실시하여 중국의 보관물류 인프라 수요를 채우고 한국도 내수 과잉시설을 글로벌 보관물류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보관 물류 인프라 공동 투자를 통해 중국 내륙 물류망을 선점할 수 있고, 물류 센터는 단순히 창고 기능만이 아닌 배송 중심 기지로써의 역할이 가능하다. 그리고 물류 창고 공동투자를 통해 한국 화주들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고, 파일럿 사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 투자를 위한 민간 주도의 공동 기금 마련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한·중 FTA와 수산업 : 저우산 사례

중국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의 약 27%를 차지하는 주요 수산물 교역국이다. 한·중 FTA 협정을 통해 한국의 대중국 수입수산물의 약 64.3%(수입액 기준)가 초민감 품목군으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산물 시장의 보호장치를 확보한 반면, 중국 수산물 시장은 수입액기준으로 수입 자율화를 100%로 완전 개방되어 對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⁴⁾ 이러한 한·중 FTA의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양국 수산업 교역과 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국 최대 수산물 수출기지인 저우산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3) 장홍석, “제4회 한·중 수산물 수출포럼 자료집”, p.24-49, 참조 정리

4)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가서명 참고 자료”, 2015.2, p.23.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중국 수산물 수출입 현황(2011-2015년)
- ▶ 이슈 포커스
: 한·중 수산업 3대 주요 이슈 동향
- ▶ 동향 & 뉴스

저우산은 1,390개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이다. 풍부한 수산자원이 있고 “저우산항 종합보세구역”이 설립되어 있다. 저우산은 국내어업, 원양어업, 수산물 가공 및 무역을 한데 아우르는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 저우산시 수산물 수출의 주요 시장이다. 한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정기항로가 있으며, 주로 참조기, 아귀, 세우, 게 등을 수출하고 있다.

저우산시에서는 한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인증 기업이 최대 90개까지 있었으나, 최근 2~3년간 기업 간 경쟁 및 한국 시장 수요 변화 등의 이유로 그 수가 50개 안팎으로 줄었다. 한·중 FTA 협정이 발효된 이후 저우산 수산물 수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첫째, 한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은 주로 원재료, 반성품, 냉동품과 애벌 가공품이다. 중국 해관 코드가 ‘03’과 ‘16’에 속한 제품의 관세는 대부분 15~20년 이후 영세율이 될 전망이고, 소수 제품은 5년 내 영세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금감면도 단계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실시 이후 5년 내 단기간에는 저우산 수산물 수출에 실제 영향이 없으나, 장기로 갈수록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둘째, 저우산은 동해 근해어로 및 오징어, 참치, 가다랑어의 원양어로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 수산물과 저우산 수산물이 상호 보완성이 낮기 때문에 현재 저우산에서 한국 수산물을 수입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향후 2~3년 동안 한국에서 대중 수산물을 수입하고 가공할 가능성도 낮다. 하지만, 일부 품질 좋은 수산물(냉동, 활어)을 수입할 가능성은 있다. 특히 활어에 대한 수요가 늘 경우 중국 수입 관세 감면과 더불어 국내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수입이 늘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 FTA는 화물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 투자와 규칙 등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중 FTA가 체결되고 실시된 이후 한·중 양국이 무역 자유화, 통관 편리화 등 측면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이는 기업 원가의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중국 수산업과 전자상거래 사례

아래에서는 수산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모델과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다.⁶⁾

1. 중국 수산업 문제점과 전자상거래 모델

우선 중국의 수산업 발전에서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통 절차가 복잡하고 오프라인 수산시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둘째,

5) 저우전하이(周震海, 저우산시 수산물수출산업협회 부비서장), “제4회 한·중 수산물 수출포럼 자료집”, p.208-219.

6) 여기서는 샤리(夏黎), 장단(张聃), 위광진(余匡军), 저우메이링(周美玲), 사청펑(夏城峰) 등의 발표 자료(2016 장강삼각주 수산발전포럼 논문집)를 정리하여 소개하였음.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중국 수산물 수출입 현황(2011-2015년)
- ▶ 이슈 포커스
: 한·중 수산업 3대 주요이슈 동향
- ▶ 동향 & 뉴스

물류 배송 효율이 낮기 때문에 유통 중의 제품 손실이 크다. 셋째, 소규모 수산 기업 위주의 시장구조인데, 이러한 소규모 기업들이 금융을 통해 융자받기는 쉽지 않다. 넷째, 규범적인 운영과 표준화 서비스가 미비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현재 중국 내 수산업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모델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전통 무역업체와 전자상거래 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 수산 업체들은 풍부한 수산물을 보유하고 있고, 전문 배송 경로와 수요자를 확보하고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하여 수산업의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최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해외 수산물 직구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있는 많은 국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해외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고급 수입 수산물을 수입하는 등 중국 내 늘어나고 있는 시장 수요를 만족시킨다. 셋째, 중간 유통과정을 생략한 원스톱 방식의 공급체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원스톱 공급체인 관리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전한 냉동제품 공급체인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냉동제품 유통 효율성을 높인다.

그리고 향후 수산업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 발전 방향을 위한 중국 전문가들의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과 소규모 기업 간 상생을 통해 수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기업은 온라인 회사와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규모 수산 기업들이 이러한 종합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산업 표준화를 추진한다. 수산물 양식부터 생산, 운송, 판매까지 표준화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운영의 규모화를 지향한다. 규모적인 운영을 통해 생산기술, 관리방식, 자금 등 측면에서 부족함을 채우고, 수산업의 표준화 운영을 촉진시킨다. 넷째, 판매 경로의 최적화를 추진한다.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파악하여 중간 비용을 절약하고, 이윤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빅 데이터를 적극 활용한다. 빅 데이터를 통해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공급과 최상의 자원 배치를 실현한다.

2. 저장성(浙江省)의 전자상거래 지역 사례

21세기 이후 저장성 전자상거래 시장은 신속하게 발전해 왔다. 2015년 저장성 전자상거래 무역총액은 2조 8,1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8.7%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판매액은 30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7%가 늘어났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저장성 수산물 전자상거래 시장은 연해 각 성, 시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2014년 수산총생산액 632억 위안 가운데 그 비중이 2.5%에 불과하여 아직 그 발전수준이 낮다. 그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의 유통과정에서 수산물 신선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콜드체인 인프라가 부족하다. 둘째, 전통적인 수산물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중국 수산물 수출입 현황(2011-2015년)
- ▶ 이슈 포커스
: 한·중 수산업 3대 주요 이슈 동향
- ▶ 동향 & 뉴스

생산 및 소비 습관이 아직 전자상거래를 통한 생산과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저장성은 수산물 전자상거래 발전방안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수산물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인프라시설 개조,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구축, 인재 육성, 전자상거래 식품 안전에 대한 홍보 등의 측면에서 정책 지원 및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수산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여러 발전 경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산 전자상거래 서비스 모델, 빅 데이터 및 과학기술 기반 모델, 포장 기술 혁신, 물류 개선 등을 장려한다. 이와 더불어 수산기업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공공 전자상거래 플랫폼 건설을 지원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보완하여 건전한 수산 전자상거래 환경을 구축한다. 다섯째, 수산물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문적인 콜드체인 물류 업체를 육성하고 시스템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품질 관리와 정보 교환을 적극 추진한다.

3. 이귀성시엔(易果生鲜)⁷⁾의 전자상거래 기업 사례

이귀성시엔은 중국 내 가장 전문화된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를 주로 하며, 2005년에 설립되었다. 2010년에 소비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11년에는 매출액이 1억 위안을 돌파했다. 2013년에는 알리바바가 전략적으로 투자했다. 이 기업에서는 산지 직구를 통한 신선식품 품질보장, 전품종 원스톱 쇼핑, 차별화와 다채널을 통한 다양한 소비계층의 수요 충족, 공급업체와의 공동경영 모델 구축을 통한 협력 상생 등을 주요 전략으로 내걸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신선식품 콜드체인 배송기술을 지닌 공급체인 관리회사인 안센다(安鮮達)를 자회사로 두어 종합 공급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6개 대륙, 22개 국가, 150개 생산기지를 통해 전 세계에 신선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중국 국내적으로는 전국 11개 생산기지를 두고, 150개 지역(도시)를 대상으로 하루 최대 18만 건의 보관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다양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다중 판매 채널을 구축하고 있는데, 주요 판매 채널로는 티몰, CJ동방홈쇼핑, Yiguo플래그십스토어 등이 있다.

4 시사점

중국 경제 발전에 따라 국민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양질의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소비가 늘면서 수산물 수입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 각 성의 평균 수산물 수입 증가율은 13.2%이다. 상하

7) 천런(陈韧), “제4회 한중 수산물 수출포럼 자료집”, p.98~157.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중국 수산물 수출입 현황(2011-2015년)
- ▶ 이슈 포커스
: 한·중 수산업 3대 주요 이슈 동향
- ▶ 동향 & 뉴스

이 등 대도시에서 연어 등 고급 수산물과 활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제품 수입량도 증가하고 있다.⁸⁾

이에 따라 한국 수산물의 對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한·중 FTA 체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양국 간 수산물 교역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이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 콜드체인 물류 서비스망 구축이나 수산물 전자상거래망 구축 등은 한국 기업이 중국 내 온·오프라인을 통해 교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주요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콜드체인과 관련해서 앞서 제시된 공동냉동냉장창고 투자운영전략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냉동냉장 보관물류 인프라를 확보하는 잇점이 있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내수 중심의 보관물류 사업에서 벗어나 글로벌 보관물류 사업으로의 확대 기회를 얻을 수 있다.⁹⁾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는 생산-물류-판매를 연결하는 수출망을 구축하고, 한국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칭다오 물류센터, 수협이 수출지원센터와 같이 공공성을 띤 교두보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염뢰 연구원 · 김민수 전문연구원
kmishanghai@naver.com

8) 이종환, “제4회 한중 수산물 수출포럼 자료집”, P.80~95.

9) 장홍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제4회 한중 수산물 수출포럼 자료집 p.46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중국 수산물 수출입 현황(2011-2015년)
- ▶ 이슈 포커스
: 한·중 수산업 3대 주요 이슈 동향
- ▶ 동향 & 뉴스

동향 & 뉴스

경제 · 정책

- <장비제조업 표준화와 품질제고 계획> 발표, 해양플랜트와 선진기술 선박의 핵심 기준 제정 촉진
- 국무원 <핑탄(平潭) 국제 관광섬 건설 방안> 통과, 중국의 두 번째 국제 관광섬으로 조성될 예정
- 중국의 국가급 해양공원 9개 증가, 해양 특별보호구에 해당
- “산둥성 종합어항경제구 건설 실시 방안” 발표
- “13·5”말에 산둥성 수산물 총생산량이 천만 톤

해운 · 항만 · 물류

- 시노트란스, 베이부완(北部灣)항그룹과 공동으로 컨테이너 항로 개척 예정
- 장수성(江蘇省) 난징 이하 항만정박지 자원, 통합 조정
- 외고교조선, Alfa-Laval과 전략적 협력 체결

- 중국 최초 선박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통제 국가기준 발표
- CCSC 발전 가속화, 2016년 상반기 순이익 전년 동기대비 117.21% 증가

해양 · 수산

- 해양환경보호법 개정을 통한 해양환경 관리와 처벌조치 강화
- 산둥 엔타이시, 일류 해양첨단기술 산업기지 구축 계획
- 상하이 자유무역구 인근 수산시장의 특징 : 수입 수산물
- ‘스마트 해양’ 건설, 저우산시와 CSIC 간 협의 체결
- 칭다오시 제조 자동승강식 해양플랜트 완공, 중동지역으로 운송 개시
- 톈진 린강(臨港)경제구, 6대 첨단장비산업 클러스터 건설 추진
- 2016년 1~7월 중국 어업 안정적으로 성장, 작년 동기대비 2.9% 증가
- “13·5”말에 산둥성 수산물 총생산량이 천만 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중국 수산물 수출입 현황(2011-2015년)
- ▶ 이슈 포커스
: 한·중 수산업 3대 주요 이슈 동향
- ▶ 동향 & 뉴스

동향 & 뉴스

1 중국 해양플랜트와 선진기술 선박의 핵심기준 제정 촉진

최근 공업·정보화부, 국가품질검사총국 및 국가표준위원회가 공동으로 <장비제조업 표준화와 품질제고 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했다. 해양플랜트와 선진기술 선박 분야의 핵심 기준의 제정을 촉진하고 국제기준과 연결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계획>에서 기준은 산업발전과 품질기술 기반의 핵심요소이자 장비제조업을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평가한다. 기준의 선진성, 조정성과 체계성은 장비품질의 전체 수준과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준을 통해 장비제조업의 패턴전환과 품질 업그레이드를 촉진시켜 제조강국, 품질강국을 건설한다는 것은 구조개혁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는 공급을 개선하고 수요를 확대하여 제품을 중급 및 첨단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

<계획>에서 중국은 해양플랜트와 선진기술 선박 분야의 핵심 기준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중요한 프로젝트와 장비의 발전요구에 포커스를 맞추어, 슈퍼 생태친환경 선박, 극지운송선박, 원양어업선박, 고성능 범집행운행선박, 대중형 호화 여객선, 대형 액화천연가스 연료 동력선박, 선박용 친환경 에너지 엔진 등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수중 생산통제 시스템, 수중 작업 전용장비와 설비, 심해 정박 및 동적위치유지 시스템, 고효율·저배출·고성능·저속도 엔진 핵심부품, 선박 스마트 감시시스템, 선박용 액화천연가스 등 기체연료 공급시스템 핵심부품 등의 중요 시스템과 설비 및 핵심부품의 기준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핵심공통기술의 기준에 대한 연구 제작을 추진해야 한다. 선박구조 경량화 설계기술, 선형최적화와 에너지 절약기술, 선박 추진장치 설계기술, 저온방호 및 방빙(防冰)기술, 선박 스마트 설계제조 기술, 수중 설치기술, 해양플랜트 해상 시험기술, 선체 마찰을 감소하는 도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한다.

<계획>에서 해양플랜트용 초대형 특수 기중설비의 기준, 해양석유 탐사채굴 설비 등의 해양석유 분야의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해수담수화의 생산기술, 통합장치와 핵심부품의 기술 기준, 해양에너지와 해상풍력발전장치 설계·제조 기술 기준, 심해·원양 해역 석유가스 자원개발 장비 기술 기준, 심해 생물 샘플과 해저 광산자원 탐사 장비기술 기준, 글로벌 종합 환경자원 조사선박 등 공예 기술 기준, 해양환경 관측, 검측기 설비의 설계·제조 기술기준, 그리고 잠수기, 해저 공간기지, 해양 감시/식별/예경장치 등의 기준을 중점적으로 제정한다.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 공업기반, 스마트 제조, 녹색제조 등 주요 분야의 기준체계를 보완하고 품질안전 기준이 국제표준과 빨리 연결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분야의 국제표준 전환율을 90% 이상 끌어 올려 장비제조업 기준의 전체수준을 대폭 제고하고, 브랜드 구축체제가 기본적으로 형성되며, 주요 장비의 품질이 국제 선진수준에 도달하거나 근접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산업과 융합되는 장비제조업의 기준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기업은 품질에 대한 주체 책임의식을 향상시킴으로써 <중국제조 2025>를 실시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중국 수산물 수출입 현황(2011-2015년)
- ▶ 이슈 포커스
: 한·중 수산업 3대 주요 이슈 동향
- ▶ 동향 & 뉴스

2 국무원 <핑탄국제 관광섬 건설 방안> 통과, 국제 관광섬으로 조성할 예정

최근 국무원은 <핑탄(平潭) 국가 관광섬 건설 방안>을 비준했으며, 핑탄을 경제가 발전되고 사회가 조화롭고 환경이 아름답고 독자적인 특색을 지니는 국제 관광섬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하이난다오 이후 중국의 두 번째 국제 관광섬이다.

국무원에 따르면, 앞으로 특색을 키우고, 장점을 살려서 섬관광 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광업을 지주(支柱)로 하는 특색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안(중국대륙과 타이완)의 경제·문화·사회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양안 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는 동시에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외개방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생태문명 건설을 심도있게 추진하여 사람과 자연 간의 조화로운 이룰려고 한다.

핑탄은 타이완에 가장 가까운 중국대륙 섬이며 관광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데이터에 의하면, 종합실험구 건설 추진에 따라 2012~2015년 기간에 핑탄의 방문 관광객이 126만 명에서 230만 명까지 증가했으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2014년 11월 1일 시진핑 주석이 핑탄을 방문했을 때 핑탄을 ‘국제 관광섬’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구상이 처음으로 나왔다. 2015년 4월 21일, 푸젠자무구가 설립된 후에 핑탄구를 양안의 공동 정원(家园)과 국제 관광섬으로 포지션을 잡았다. 2015년 12월, 핑탄의 국제 관광섬 건설이 시작되었다. 올해 연초 국가여행국은 처음으로 262개 국가 전역화(全域化) 관광시범구를 발표했으며, 핑탄 종합실험구가 입선되었다. 올해 1월, 푸젠성 양회에서 2016년 핑탄의 신흥산업구, 고급서비스구, 생활구와 국제 관광섬의 조성을 촉진하여, 타이완 동포의 ‘제2생활권’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관련 계획에 의하면, ‘13·5’ 시기에 핑탄의 독특한 관광자원 우위조건을 발휘하여 국제화 관광섬의 새로운 개발 모델을 탐색함으로써 2020년까지 국제 관광섬의 모태가 조성되어 국내 일류 섬관광 목적지로 구축하도록 한다.

<자료 : 中国海洋报 2016. 08. 25>

3 중국에서 국가급 해양공원 9개 증가, 해양특별보호구에 해당

국가해양국 생태환경보호사(生态保护司)에 따르면, 최근 국가해양국이 <다롄 셴위완(仙游湾) 등 9개 국가급 해양공원의 건립 비준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으며, 9개 국가급 해양공원을 새로 증가했다. 지금까지 중국의 국가급 해양공원은 총 42개가 있다.

이번에 새로운 9개 국가급 해양공원은 랴오닝 다롄 셴위완, 다롄 씽하이완(星海湾), 산둥 옌타이 라이산(莱山), 칭다오 자우저우완(胶州湾), 푸젠 핑탄(平潭) 종합실험구 하이탄완(海坛湾), 광둥 양시(阳西) 월량완(月亮湾), 홍하이만(红海湾) 저랑(遮浪)반도, 하이난 완닝(万宁) 라오예하이(老爷海), 창장(昌江) 치즈만(棋子湾) 등이다. <통지> 요구에 따르면, 랴오닝, 산둥, 푸젠, 광둥, 하이난성의 해양어업청은 국가해양공원의 소재지 정부와 함께 관리기구와 관리경비의 실행을 이행하고 관련 규칙 제도를 제정하며 주요 보호대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그 가운데 적정이용구역(适度利用区)에서 생태관광, 생태양식 등 생태적 자원이용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해양생태환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통지>에 따르면, 각 해양어업청(국)은 해양공원의 면적과 범위에 의해 해양공원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중국 수산물 수출입 현황(2011-2015년)
- ▶ 이슈 포커스
: 한·중 수산업 3대 주요 이슈 동향
- ▶ 동향 & 뉴스

의 경계 측량조사를 서둘러 진행하고 나서 정해진 경계를 사회에 공지한다. 해양공원의 면적, 범위와 기능분류는 함부로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중국 해양보호구는 주로 해양자연보호구와 해양특별보호구로 구분되어 있다. 해양공원은 해양특별보호구 중의 한 유형이다. 2011년부터 국가해양국이 첫 번째 국가급 해양공원을 발표한 이후 연이어 다섯 번째로 42개 국가급 해양공원을 수립했다.

국가해양국 생태환경보호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생태효익성에서 보면, 국가급 해양공원의 수립은 해양생태문명의 함의를 풍부하게 만들었고, 연해, 도서와 해양 생태시스템의 건강과 안전을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으며, 해양생물을 위한 서식, 번식과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으므로 완전한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사회효익성에 있어, 해양공원은 해양문화의 향상과 보급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과학연구, 과학지식 보급 및 교육에 이상적인 기지이다. 또한 해양생태 보호의 사회공중의식을 강화할 수 있고 공중참여와 지역사회 공동관리 모델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해양레저와 생태관광을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해양경제의 다양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자료 : 中国海洋报 2016. 08. 25.>

4 시노트란스-베이부완항그룹 공동으로 컨테이너 항로 개척

8월 15일에서 중국 시노트란스그룹 송덕싱(宋德星) 총경리 일행은 난닝(南宁)에서 광시좡족자치구 베이부완(北部湾)항그룹 저우효시(周小溪) 회장, 위타오(韦韬) 총경리를 만났다. 양 측은 향후 네트워크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물류, 항운, 복합운송, 컨테이너항선, ro-ro운송, 해외 물류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에 동의하였다.

송덕싱 총경리는 중국 연해 항만 배치, 국가 발전 전략 및 아세안 국가 간의 협력 등의 분야에 있어서 베이부완은 독특한 지역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베이부완항은 항만 분야를 제외하고, 다원화 발전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시노트란스와 베이부완항그룹은 교류를 통해 성숙한 업무와 신흥 업무를 뿐만 아니라 업무협력과 자본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베이부완항그룹을 중심으로 해상통로 발전을 통해 중국 서남지역의 항만과 항운분야 등을 강화시킬 것이다.

저우효시(周小溪) 회장은 베이부완그룹이 항만기업뿐만 아니라 물류, 공업, 무역업, 부동산 및 투자 등 일체화 종합기업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베이부완그룹은 말레이시아 쿠안탄항 및 물류원구의 건설 참여를 통해 국제화 경영 수준을 제고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베이부완그룹은 시노트란스와 교류를 통해 더욱 넓은 범위 및 깊은 측면의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료 : 中国航贸网, 2016. 08. 18.>

5 장수성 난징 이하 항만정박지 자원, 통합 조정

일전, 교통운수부가 전국에 걸쳐 실시한 “9개 심화 개혁 시범작업” 중의 하나로, 장수성(江蘇省) 난징(南京) 이하 창장지역항만 발전의 일체화 개혁은 묘박지 자원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중국 수산물 수출입 현황(2011-2015년)
- ▶ 이슈 포커스
: 한·중 수산업 3대 주요 이슈 동향
- ▶ 동향 & 뉴스

의 통합 조정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창장(長江) 유역에 있는 장수(江蘇) 해역의 길이는 총 425km이며, 그중 심수항로가 369km로 창장 주항로 중에서 통항 조건이 가장 좋고 선박의 통과용량이 제일 크며 경제사회적 효익이 가장 뚜렷한 “황금수로”이다. 일전, 장수성의 실제 묘박지(錨地) 30개가 있으며, 그곳에는 423개의 정박지가 있다. 그 중, 1만 톤급 이하의 정박지 327개, 1~5만 톤급 정박지 67개, 3~5만 톤급 정박지 9개, 5만 톤급 이상의 정박지 20개가 있다. 전체 정박지 중에 위험물 묘박지는 8개이며, 그곳에는 총 72개의 정박지가 있다.

창장지역항만 정박지 자원은 항상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적재량이 큰 선박에 대한 정박지의 수요가 크다. 2014년 장수 구간의 5만 톤급 이상의 정박지의 평균 정박 횟수는 124척/개 이다. 위험물의 경우는 125척/개 이다.

장수성 교통운수청의 순시원(巡視員) 왕창바오(王昌保)는 “현재 창장의 장수 구간에서 항만의 정박지 건설에 사용 될 수 있는 수역면적은 97.58km²로 외항선 수요의 전부를 우선 충족시킬 경우 5,000톤급 이상의 정박지는 372개밖에 건설하지 못한다. 또한 12.5m의 심수항로 건설이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창장 하류 선박의 대형화 추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예상컨대, 2020년이면 5,000톤급 이상의 정박지는 134개가 모자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의 정박이 어려운 상황, 특히 대형선과 위험물선박이 제때에 정박하지 못하는 경우, 중대한 안전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12.5m 심수항로의 효능 발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다.

창장항만 묘박지 자원이 부족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여러 부서의 관리, 직원 분산, 정박지 자원 공용화 정도의 낙후성 등 제반문제로 정박지 자원의 이용률을 최대한으로 발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수성 교통운수청 항만국 국장인 주페이더(朱培德)는 교통운수부 개혁 시범의 관련 요구에 따라 장수성은 <장수 난징 이하 창장지역 항만일체화 시범개혁사업의 추진 및 실시방안>을 제정하여 묘박지, 해안선, 항로 등 3대 자원의 통합 조정의 개별 임무, 시간절점, 업무요구 및 예상성과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책임단위를 구체화 했다.

장수성 교통운수청은 장수성 해사국과 창장항만 정박지관리조정팀을 출범시켜 정박지 자원의 정리 합병작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장수 창장항만묘박지 조정센터”가 설립되었고 “장수 창장항만묘박지관리규정”(시행)이 정식으로 발표되었으며 “항만묘박지 지휘조정 정보화 시스템”이 개발되어 9월 초에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로 인하여 장수 해사국의 AIS, 창장항로의 전자항로도, 인항센터(引航中心)의 인항계획 등 정보시스템을 한층 더 융합하여 11월 말 전까지는 전면적으로 인터넷 운영을 완성하고 창장항만 정박지 자원의 통합 조정, 정박지 집중 계획 배정, 정보자원의 공유를 근본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이후 선박은 통일적인 방법으로 통과되고, “장수 창장항만 정박지조정센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창장 각 항만관리부서에서는 온라인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선박의 동향, 묘박지 정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한다. 정박지가 긴장된 상황 하에서는 조정센터에서 통일적으로 배정을 진행한다.

묘박지 자원의 통합 조정은 개혁의 첫 걸음일 뿐이다. 장수는 난징 이하 창장지역 항만 일체화 시범개혁의 업무목표를 1~2년 내에 장수 난징이하 창장지역항만 일체화 개혁시범시점을 통해 묘박지 정박 통일 집중 조절, 해안선 자원의 합리적 통제 및 고효율적 이용, 컨테이너 항로 자원의 합리적인 분포와 합작경영 등의 분야에서 중대한 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정했다. 이는 지역항만 일체화 발전의 장기적 유효체제를 근본적으로 형성하였고 창장 각 도시가 항만과 항만사이의 자원 통합 조정과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중국 수산물 수출입 현황(2011-2015년)
- ▶ 아슈 포커스
: 한·중 수산업 3대 주요 이슈 동향
- ▶ 동향 & 뉴스

기능 업그레이드 면에서 실질적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장 난징이하 12.5m 심수항로가 건설된 이후, 10만 톤급 만재 벌크선, 20만 톤급 감재(減載) 벌크선이 만조시에 타이창(太倉)항에 입항할 수 있으며, 5만 톤급 외항선이 난징에 입항할 수 있게 되었다. 왕창바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5만 톤급 이상의 선박이 직송 비율이 뚜렷하게 제고되어 매년 절감될 수 있는 물류원가는 30억 위안, 감소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00만 톤, 이미 건설된 135개 장수성 창장 5만 톤급 능력의 정박지가 체증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자료 : 中国港口, 2016. 08. 25.>

6 해양환경보호법 개정을 통한 해양환경 관리와 처벌조치 강화

8월29일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해양환경보호법 개정안(초안)에 대해 초기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에 해양환경보호의 법률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법규의 개정문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기존 해양환경보호법의 개별 조례를 수정하고 해양환경오염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초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수정하거나 추가했다.

1) 해양환경보호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해양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기업의 해양환경 위법행위를 횡수가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영업정지 등 처벌조치를 취한다. 기업의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추가했다. 연안건설 프로젝트가 법에 의해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은 법적 책임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연결시켜 규정한다. 해양환경 오염사고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는 최고 30만 위안의 처벌상한선을 없애고 사고등급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액의 20~30%의 벌금을 부과한다.

2) 해양환경보호법은 새로운 환경보호법에서 추가로 설정된 제도와 연결시켜야 한다. 주요 오염물이 바다로 배출된 총량 기준을 초과하는 해역이나 해양환경보호의 목표와 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해역에는 환경영향 평가 실시를 제한한다. 그리고 해양생태보호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은 생태 레드라인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3) 행정 심의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일부의 행정 심의사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예를 들면, 해안 및 해양프로젝트의 건설에 필요한 환경영향 보고서(표)의 편성시간이 ‘타당성 연구단계’에서 ‘프로젝트 착공 이전’으로 바뀌었다. 또한 해양프로젝트 건설의 환경영향보고서는 더 이상 환경부문에 제출하지 않으며 환경보호 시설도 환경부문에겐 검수를 받지 않는다.

<자료 : 中国国土资源报, 2016. 08. 29.>

7 산둥 엔타이시, 일류 해양첨단기술 산업기지 구축 계획

엔타이시는 ‘13·5’ 시기까지 100개 해양과학기술 성과를 달성하고, 20개 성과 전달성 시범기지를 구축하며 10개 산업화 시범연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엔타이를 국내 일류 해양첨단기술 산업 시범기지로 구축할 예정이다.

엔타이는 풍부한 해양자원, 비교적 강한 과학연구·교육 역량, 비교적 높은 개방수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중국 수산물 수출입 현황(2011-2015년)
- ▶ 이슈 포커스
: 한·중 수산업 3대 주요 이슈 동향
- ▶ 동향 & 뉴스

준과 양호한 해양경제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엔타이는 중국 해양경제발전에 잠재력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현재 엔타이의 해양경제 발전은 구조조정과 개선 단계에 처해 있다. 해양경제 발전에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해양경제의 산업구조가 여전히 단일하고 해양산업의 생산액은 장기적으로 주로 수산업, 연안관광업과 해양조선업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과학기술 혁신을 엔타이시의 전략목표와 중점 발전임무로 다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양경제의 새로운 경쟁력을 계속 육성하고 해양신흥산업을 강화, 발전시킴으로써 엔타이시 해양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해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엔타이시 해양어업국의 선임 엔지니어 쉰우지하오(邹积浩)에 따르면, 엔타이 해양어업국은 향후 혁신을 통한 발전촉진 전략을 심도 있게 실시할 것이며, '13·5' 시기의 주요 해양산업 생산액은 5,000억 위안을 웃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화·전문화 원양어선은 80척으로 늘리고, 원양어업 연간 생산량 목표는 20만 톤으로, 또한 생산액 목표는 30억 위안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해양생물 등 전략적 신흥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20% 이상을 달성할 예정이다.

쉰우지하오에 따르면, 해양플랜트 제조, 해양생물 제품, 해양 에너지 화공업과 해양 신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연구를 추진할 것이며, 국제 경쟁력과 독자적 지적 소유권을 지닌 과학기술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 외에는 국가 해양 첨단기술 산업기지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산·학·연 간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여 해양과학기술 성과의 달성을 촉진할 예정이다.

<자료 : 中国海洋网, 2016. 08. 20.>

8 상하이 자유무역구 인근 수산시장의 특징 : 수입 수산물

상하이수산업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상하이시 수산물 연평균 교역량은 140만 톤 정도이고, 연평균 소비량이 85만 톤이다. 장양루(江杨路), 장양루(江阳路) 등의 지역에 있는 대형 수산시장들이 상하이시 시민들에게 수산물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도매시장들은 인기가 많지만 시장 구조, 거래 서비스 및 콜드체인 물류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

상하이수산업협회, 저장성 수산유통 및 가공협회, 장수성 어업협회와 안후이성 어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6 장강 삼각주 수산발전 포럼"이 푸둥에서 개최되었다. 포럼에서 상하이 자유무역구 인근의 닝하이(凌海) 국제농산물무역센터가 9월 26일에 오픈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다. 통촨시장(铜川市场)이 문을 닫는 이 시기에 면적이 10만여㎡인 무역센터가 상하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구매하는 새로운 시장이 된다.

2004년 6월부터 성공적으로 개최해 온 장강삼각주 수산발전포럼은 올해 6회째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수산물 산업의 공급측 구조개혁(供给侧结构改革, 노동력, 토지,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 측면의 효율성 제고를 강조한 개념)과 수산물 유통 및 소비의 개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장강삼각주의 각 성 및 시당국 수산업의 협력을 추진하고, 산업협회의 기능을 향상시키며 이 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포럼 장소는 푸둥 까오치아오전(高桥镇) 닝하이 국제수산물무역센터이다.

많은 소비자들은 품질 좋고 저렴한 수산물을 구입하기 위해 통촨수산시장에 찾아갔는데 도시 건설 등의 이유로 10월 31일에 문을 닫을 계획이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중국 수산물 수출입 현황(2011-2015년)
- ▶ 이슈 포커스
: 한·중 수산업 3대 주요 이슈 동향
- ▶ 동향 & 뉴스

닝하이국제수산물센터에서 해산물 판매 부스가 엄격한 기준으로 설치되고, 표준화 수산 마트처럼 각종 수산물이 깨끗한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다.

수입 수산물은 이 무역센터의 큰 특징이다. 중국 측 투자자가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나라에 있는 유명한 수산물 어획·가공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었다. 바하마, 파나마, 도미니카 등의 어업회사 및 베트남, 태국 등의 가공공장을 인수하여 중간 절차를 없애고 수입 수산물 가격을 낮춘다. 예측에 따르면 이 무역센터의 연평균 거래량은 50만 톤에 달한다.

무역센터 1기에서 세계 냉동 수산물 전시구역, 신선·활어 전시구역, 패류 구역, 건조 수산물 구역, 온라인 거래구역, 비즈니스 구역과 대형 냉동창고 등 기능 구역을 설치한다. 규범적인 판매부스, 냉장창고, 수조, 식당, 주차장 등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입점하는 업체를 위해 공상국 등록, 세무, 품질검사, 위생, 검역, 은행 결산, 운송 및 보안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닝하이 국제수산물 무역센터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전시 판매, 창고 저장, 콜드체인, 식품 안전 정보 추적 등을 통합하는 수산물 무역 플랫폼으로 발전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물 온라인 거래, 오프라인 결제, 전자결제, 고속 배송을 결합하는 고효율 신형 무역단지가 되며 규모가 크고 전문성이 있는 국제 수산물 집산지를 건설할 전망이다.

<자료 : 上海观察, 2016. 08. 25.>